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지원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Female Marital Immigrant Families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
교 수 홍 성 희**
조 교 수 김 성 숙

Dep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Keimyung University

Professor: Hong, Sung Hee

Assistant Professor: Kim, Sung Sook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integrated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female marital immigrant families in Korea. For this purpose, 21 immigrated female informants and 33 visiting teachers who provide teaching services to female informants were focus-group interviewed.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of informant's responses, both married female immigrants and visiting teachers expressed the needs of Korean language programs interpreted by immigrants' native speakers as well as programs to support their children.

Married female immigrants expressed the needs for her husbands joining educational programs not much, on the other hand visiting teachers insisted to join their husbands

* 본 연구는 2007년도 계명대학교 비사연구기금으로 이루어졌음

** 주저자, 교신저자: 홍성희 (hsh@kmu.ac.kr)

as well as other family members to diverse family-related programs.

Married female immigrants wanted programs to support their working skills, however visiting teachers emphasized their responsibilities and active attitudes before they get a job.

Married female immigrants were not conscious any counselling programs to cope with husband's violence or maladjusted children, on the other hand visiting teachers insisted counselling programs to help female immigrants. Above all the programs, most of female marital immigrants wanted Korean language programs interpreted by their native speakers and programs to support their working skills, on the other hand visiting teacher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amily-related programs and counselling programs.

Key Words : 여성결혼이민자가족(female marital immigrant families), 모국어 연계 한국어교육프로그램(Korean language programs interpreted by native speakers), 가족지원 프로그램(family-related programs), 상담 프로그램(counselling programs)

I. 문제의 제기

국내에서 신고된 국제결혼건수는 1990년 4,710건에 불과했으나 점차 늘어나 2007년에는 38,491건으로 약 11배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50배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통계청, 2008).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되었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은 2000년대 이후 전체 결혼의 10%를 넘어서는 일반적인 결혼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농촌과 농림업 취업자 등 특정 지역과 계층에서는 지배적인 결혼형태를 이루게 되었으며, 1998년 국적법 개정을 계기로 결혼이민여성 출신국도 한국계 중국인 위주에서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한민족’을 전제로 한 사회 구성에 일대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김이선 등, 2007).

이와 같이 결혼이민여성의 수가 짧은 기간 동안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즉, 결혼이민여성들은 의사소통의 어

려움, 문화적 차이, 남편이나 가족과의 갈등, 인권침해,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 받는 문제가 적지 않으며(설동훈 등, 2005). 또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경상북도 내 결혼이민자가구의 41.9%인 1,454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으며(정일선, 2007), 설동훈 등(2006)의 실태 조사에서도 결혼이민여성들이 평가한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11점 중 3.8점으로, 거의 ‘하층’에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이민여성의 가장 큰 불만의 원인이며(김오남, 2006b; 경북여성개발원, 2007), 부부갈등과 같이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김오남, 2006b).

초기 여성결혼이민자는 가족으로부터 한국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도록 요구받고 있을 뿐 사회나 정부로부터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나 어떠한 대안도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

으로써 중앙 행정부서와 지방자치단체, 학술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고 2005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직면한 각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위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822개 기관 가운데 2005년에는 10.5%인 86개 기관에서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을 실시한 데 비해 2006년에는 29.4%인 242개 기관에서 사업을 실시하여 1년 사이에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2007). 특히 2006년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에 특화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더욱 늘어났다.

그러나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일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즉, 2006년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 중 70% 이상의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했으며(김이선, 2007), 한국어교육의 경우도 대부분 초급 과정만 실시되고 있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제공방법도 다양화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급격히 성장하였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은 일부에 한정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결혼이민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출신국이 다양화되고 결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이들이 개인적으로 한국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는 문제 뿐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대등한 부부관계를 정립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것이며, 자녀의 출산과 성장에 따라 자녀교육과 부모자녀관계를 형성시키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여성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가족의 특수한 요구와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어 교육과 조리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주체별로 수립한 결과 유사프로그램이 중복적, 단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가족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시각에서 볼 때 이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제공하거나 많은 프로그램을 양 위주로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전시 행정의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별 운영주체의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별 통합과 연계, 수요자의 개인적 요구와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영역별 통합, 남편과 자녀를 참여시키고 지원하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의 통합, 사회에 대한 관심과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 등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개발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생활문제와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개인적 요구수준과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이들의 복합적 문제점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역별 통합 프로그램, 가족통합 프로그램, 사회적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 내용상의 통합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결혼이민여성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의 다양한 제공주체가 공동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장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상의 통합적 프로그램의 모델을 구성,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생활문제와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의 고유한 특성과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한다. 나아가 프로그램 수요자인 결혼이민여성들이 정보의 부족이나 의사소통능력의 한계 때

문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급자인 방문교사가 인식하는 필요 프로그램을 조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보완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에서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지원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동시에 미래의 요구를 파악하는 연구는 결혼이민자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구조의 정착과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지원, 더 나아가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생활문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생활문제의 해결과 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유추하기 위해 우선 그들의 생활문제와 부적응, 갈등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제한된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다.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부부갈등이 높게 나타나며(김오남, 2006a; 한건수, 2006), 언어장벽은 가족관계나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할 수 있다. 반면 언어의 능숙함은 여성에게 지역사회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배움을 유도하는 요인이며(Garcia, 1993; Nah, 1993; Goldman, 1999), 새로운 문화에의 재정착과 적응과정에 영향을 준다(Ataca & Berry, 2002). 즉, 언어장벽은 부적응과 갈등표출의 기본적인 요인임을 볼 때 한국어 능력이 결혼생활과 새로운 문화에의 적응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출신국과 기후, 음식, 관혼상제 등 풍습과 문화가 다른데서 경험하는 혼

란과 적응문제가 생활전반에 나타나는데, 문화적 차원은 믿음, 관습, 전통, 삶의 양식을 포함한 결혼생활의 중요한 면으로서(양선화, 2004) 일상생활과 가족가치관 공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은 한국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안내 없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터득해 나가는 힘든 문화학습과 적응의 과정을 거치는 반면 한국인 남편과 시부모들은 상대방의 문화를 배우거나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많이 느끼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한국문화에 빨리 동화되기를 바라는 상황임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남편과 가족들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아내나 며느리와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문화적 차이는 언어와 음식이 다르다는 점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결혼이민여성 개인의 성격 탓으로 치부해버리는 일이 많아 가족과 부부 간의 갈등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한건수, 2006).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경우(양선화, 2004)가 보고될 만큼 결혼이민여성 개인에게는 차이의 정도가 크고 적응과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남성 중심적 가족구조가 결혼이민여성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상임, 2004; 홍기혜, 2000; 윤형숙, 2004; 한건수, 2006).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진 한국남성은 아내보다 부모에 대한 효도나 친척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므로 결혼이민여성들은 남편의 자기중심적 생각과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최금혜, 2005). 특히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는 이주여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로 부부갈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배우자, 부모, 친척들과의 친밀한 가족관계

는 지지의 원천이 된다(Cottrell, 1990; Killian, 2001).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의 남편들이 낮은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아내를 지지해주고 어려움을 배려하지 않아 부부갈등을 느끼며, 심지어 언어적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 표출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한다(김상임, 2004). 양선화(2004)의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폭력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고되었는데, 가정폭력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 중 하나이며,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남편의 성격 장애나 알콜 중독 등 다양한 이유로 부부간, 혹은 고부간 갈등이 많고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가정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였다. 윤형숙(2004)도 다양한 부부갈등을 느끼는 상황에서 통제의 수단으로 폭력과 폭언 등이 행해졌다고 보고하였다.

남편의 폭력이나 학대가 없는 경우에도 결혼이민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친밀한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짧은 맞선을 통해 낮은 나라로 온 상태라 대부분 부부간에 정서적이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생활을 시작한다. 또 부부간의 사적인 친밀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언어와 문화의 차이, 학력과 연령차 등 다양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결혼기간이 경과되면서 결혼이민여성들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교육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동훈 등(2006)의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조사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농촌 거주 여성이민자는 ‘자녀 문제’를 힘든 점으로 지적한 비율이 높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취학 또는 취학 자녀들을 보육비용 때문에 양육기관에 보내지 못하고 혼

자 집에서 지내는 경우도 38.1%에 달했다. 또 여성이민자들 중에 자녀를 더 낳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로는 ‘자녀 뒷바라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의 문제가 있다. 한편 자녀가 자라면서 자녀와 언어소통의 문제로 갈등을 경험하는 것(홍달아기 등, 2006)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학자녀의 문제(설동훈 등, 2006)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적인 어려움과 자녀의 외부 사회 부적응문제 등 다양한 자녀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한편 결혼이민여성과 가족의 경제적 상태와 그로 인한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오남(2006b)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 내 부부갈등 중 경제적 문제에 대한 갈등이 가장 높으며, 이들 중 80% 이상이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로 나타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주 여성의 결혼동기 중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경제적 동기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한 결과 경제적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건수(2006)의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일본을 제외한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은 경제적 혜택이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요인이었으나, 많은 여성들은 남편의 경제력이 기대했던 것보다 어렵고, 자신이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낮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홍달아기 등(2006)의 연구에서도 남편이 농업이나 일용근로자인 경우가 많아 경제적 문제를 호소하는 결혼이민여성들이 많았으며, 자국보다 나은 생활을 기대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러한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제적 문제는 다른 사회에서도 나타나는데, 호주 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갈등에 대한 Woels-Stirling(2000)의 연구에서는 필리핀여성의 비현실적인 경제

적 기대, 본국 가족에게 송금, 부인의 취업을 허락하지 않는 남편의 태도, 재정 상태와 같은 경제적 문제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상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경험하는 생활문제로는 우선 언어장애로 인한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심각하며 문화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부적응문제가 있다. 또 남편과 가족은 이들의 적응을 돕는 지원이 될 수 있으나 남편의 거부장적 태도나 고유의 가족문화로 인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아내에게 학대와 폭력을 행사하는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이들에게 자녀양육은 한국인 여성의 경우보다 더 어렵고 심각한 과제로서 자녀의 성장에 따라 자녀와의 갈등이나 자녀의 학업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더구나 기대했던 경제적 수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으로 인한 생활고와 갈등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생활문제의 유형과 수준을 고려할 때 결혼이민여성들의 개인적 적응을 돕는 한국어 교육이나 문화 적응 교육 이외에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족생활을 위한 여성과 남편, 가족 대상 교육, 그리고 자녀양육을 돕고 정보를 제공하는 자녀지원 프로그램, 경제적 안정을 위한 취업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실태

결혼 이주여성에 특화된 사업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정부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각종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결과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 광범위한 부처를 포괄한 종합 대책인 이 지원 방안은 ‘여

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과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을 목표로 결혼-이주-정착 단계별로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직면하는 문제, 특히 결혼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와 이주에 따른 체류의 불안정성, 가족관계와 언어를 비롯한 생활적응문제, 빈곤문제 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통합지원방안 발표를 계기로 그동안 사업을 진행해온 부처를 포함한 많은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6년에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광역단위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중 29.4%의 기관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김이선, 2007), 이외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을 특화시킨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기관을 통한 사업 이외에 방문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와 가사 및 육아 부담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여성들의 서비스 접근권 역시 다소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대상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을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2007년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은 공통사업과 특화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특성화를 이룰 수 있었는데, 이 중 공통사업은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가족생활상담이며, 문화정서 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다문화인식개선사업, 자녀지원사업, 찾아가는 서비스 및 기타 사업은 특화사업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사업은 한국생활 적응 및 문화이해, 가족관계 증진,

〈표 1〉 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예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한국어교육 : 발음, 자음모음 듣기, 쓰기 등 ○ 한국문화이해 프로그램과 한국어교육 동시 실시
가족 통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대상 프로그램 : 한국문화의 이해, 부부관계, 의사소통, 부모역할, 육아 등 ○ 배우자대상 프로그램 : 배우자나라 문화이해, 부부관계, 의사소통, 부모역할, 육아 등 ○ 시부모대상 프로그램 : 며느리나라 문화이해, 시부모역할, 가족생활, 가족관계 등 ○ 자녀대상 프로그램 : 엄마나라 문화이해, 가족관계, 가족 및 자녀역할, 의사소통 등 ○ 통합가족대상 프로그램 : 가족 구성원 2인 이상 참여 ○ 농촌총각 국제결혼대상자 배우자교육 실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문제 상담 - 고부 갈등 경험자에 방문교육지도사 및 자원봉사자 지속적으로 파견, 사례 관리 ○ 정보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의료 문제 등 기본정보 및 자료 제공 - 센터 및 지역내 유관기관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 - 한국생활 도움 책자 제공 - 한국생활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센터프로그램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실, 가족통합교육, 요리교실, 컴퓨터교육, 집단상담, 남편 모임, 멘토-멘티 연계, 자조모임, 자녀지원, 방문교육사업 등 ○ 쉼터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상담 요청 결혼이민자를 쉼터와 연결 ○ 전문기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어린이집, 학교, 법원, 복지관, 지자체 연계
문화정서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요리, 한국가족생활문화, 전통예절, 공예, 다문화 이해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 한국어강사 양성교육 ○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 다문화강사 양성교육 ○ 원어민강사 및 통번역사 양성교육 ○ 컴퓨터(정보화)교육, 운전면허교육, 직업교육, 직업검사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별 프로그램 전시, 다문화음식체험, 다문화의상체험, 결혼이민자 나라의 전통 공연 및 결혼이민자가족 노래자랑, 무료건강검진 ○ 주민서비스 박람회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활동 및 다문화가정 홍보 ○ 학교와 유치원 대상 다문화인식개선교육 ○ 다문화 인형극, 다문화 동화책(스토리텔링 북), 동영상(결혼이민자 UCC) 제작 및 보급 ○ 다문화캠페인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 홍보활동
자녀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와 자녀 대상 부모자녀교육 ○ 자녀 한국어교육, 다문화 국제언어교실(이중·삼중언어교육) ○ 몬테소리교육, 음악교육, 신체활동교육, 방과 후 학습지원 ○ 상담 및 심리치료 ○ 한국문화 적응교육 및 체험 교육 ○ 다문화청소년연극교실 ○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한국어 및 가정생활적응교육 ○ 찾아가는 배우자교육 및 자조모임 ○ 찾아가는 가족상담

출처: 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결과보고서(2007), 여성가족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표 2〉 결혼이민여성 대상 프로그램 예

추진 부서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경희대학교 위탁)	교육사업	- 한국어 초중급 교육 및 한국 가정생활교육 - 한국요리 - 부부관계교육 - 컴퓨터 교육 - 직업적성검사 및 관계기관 연계
	상담사업	- 전화, 면접, 사이버 상담서비스 - 심리검사 (MBTI, 지능검사, 창의성검사) - 신체적 건강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 결혼이민자 관련 법률 상담
대구광역시 여성청소년 가족과	문화, 정서 지원사업	- 한국문화체험 (우리춤 공연 및 풍물놀이, 우리음식 시식)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운영비 지원	- 상담, 한국어, 문화이해, 교육정보 제공 등
	찾아가는 서비스운영	- 방문 한글교육도우미 양성 및 한글교육, 가족상담, 부부·가족생활 교육, 문화이해 교육 등
	아동양육 지원사업	- 아동양육지원도우미 양성 및 찾아가는 자녀교육서비스
	지역사회주민의 다문화 이해증진교육	- 대학생 다문화교육, 다문화학술제, 다문화 캠프 등
	글로벌시대 한마음 가족 사랑 나누기	- 결혼이민자 웅변대회, 학술제, 가족캠프, 지역주민 다문화 교육, 글짓기 대회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복 쌓기	- 인성캠프 운영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 가족구성의 일반특성, 경제상태, 가족 가치관 등 조사 및 장단기 종합지원 계획수립
	한국어 및 가정생활적응교육	- 수준별 한국어교육, 가정생활 적응교육
	우리사회이해교육	- 요리교실, 박물관 견학, 지역문화유적지 탐방 등
	가족상담	- 면접상담, 전화상담, 가정방문 상담, 통역원 대기, 유관기관 연계 등
	가족통합교육	- 배우자교육, 시부모교육, 자녀교육, 부모교육, 부부교육 등
	자조집단	- 출신국별, 지역별, 부부자조집단 운영
	다문화인식개선	- 다문화 캠페인, 다문화 축제, 다문화 교육, 홈페이지 운영 등
	정서지원	- 결혼이민자 교육 시 자녀보호 및 자녀지원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자녀 멘토 연계 - 보건·의료 지원 및 연계 - 한국어 말하기 대회, 행복 나눔 운동회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 정보화 교육, 제과제빵 교육, 통·번역사 양성교육, 지역 전통 요리 교육
	영농사업	- 농촌생활에 필요한 영농교육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종합복지관	한국어교육	- 정착과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한글 교육
	일상생활지원교육	- 요리, 가요, 댄스, 미술치료 등
	지역사회기여활동	-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주체성을 살린 봉사활동 및 강사 활동
	한국문화체험	- 한국 전통문화, 전통놀이 현장 체험
	부모교육	- 자녀양육법 교육
One-Stop종합상담	- 한국 생활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방문, 전화, 내방 상담	

출처 : 김영화(2008), 컬러풀 대구의 다문화 지역사회정책, 대구광역시 2008 여성정책토론회, p76-77.

사회적 연계망 형성 지원, 여성복지 증진, 상담, 취업기술교육 및 일자리 알선, 일반교육,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실제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일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이선, 2007). 즉, 2006년에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중 한국어교육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국요리강습이었으며, 이밖에 문화유적탐방과 전통문화체험, 생활예절교육 등이 많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여성회관,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본연의 특화된 기관들이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기 보다는 한국어교육과 요리 강습 등 대동소이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각 기관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표 2>와 같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 및 참여인원 등의 실효성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많아지고 제공횟수가 늘어나는 등 외형적으로는 급격히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3.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교육프로그램 이용 실태와 요구

광주·전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외국인 주부대상 프로그램을 조사한 양철호 등(2003)은 외국인 주부들이 우리말과 글을 익히고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극복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실무자의 자의적이고 일회적인 문화체험 위주이고, 교육 참여자의 수가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김이선 등(2006)의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교육 내용은 사회적 연결망 형성이나 복지서비스,

상담,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등과 관련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산후도우미, 가사도우미 파견, 풍물전시교류, 요리교류 등은 적극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반적으로 여성들의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돕고 동화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다문화가족, 다문화사회의 미래상이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설동훈 등(2006)의 실태조사에서는 여성 이민자의 1/5 정도가 한국어 교육, 한국요리 강습, 한국문화 관련 서비스를 체험하였으며, 도시에 비해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교육프로그램을 더 많이 체험하였다. 이들이 체험한 프로그램 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한국어교육이었으며, 또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의 순위에서도 역시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 필요 순위는 취업교육 및 훈련, 컴퓨터·정보화 교육의 순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이민자에게 필요한 한국어 교육 이외에 취업교육 및 훈련, 컴퓨터·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는데, 이는 높은 취업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홍달아기 등(2006)의 사례 연구에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았으며, 배울 곳이 적절치 않거나 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밖에는 한국요리법, 취미활동, 다른 가족원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자립능력을 길러 분가하거나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다는 욕구 등을 토로하였다.

한건수(2006)는 여성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국 문화가 더 풍요롭고 다원화되는데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결혼이민여성들에게만 한국문화 수업을 강요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여성의 출신국 문화를 가르치고 일반시민들에게도 다문화를 접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문화사회를 향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김이선 등(2006)의 연구결과에서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한국어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모국어에 대한 남편의 관심을 요구하고 모국어를 자녀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등 자신의 모국어와 음식 역시 가족문화의 일부라는 점을 내세운다. 또 무엇보다 한국의 경직된 젠더구조, 특히 여성의 과중한 가사와 자녀양육부담, 시댁과 친정에 대한 비대칭적 관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요구를 감안할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현재 제공되는 한국문화 수용을 위한 프로그램 이외에 앞으로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혼이민여성의 교육프로그램 이용 실태 및 요구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어교육의 참여도와 요구도가 가장 높은 점 이외에 취업관련 교육,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의 변화를 위한 남편 및 가족대상 교육, 가족 및 일반인 대상 다문화교육 등이 앞으로 요구 될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 하는데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개인적인 상황과 선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생활실태에서 비롯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생활에 정착하지 못했거나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결혼이민여성가족을 방문하여

한글교육과 아동양육을 지도하고 있는 방문교사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여성가족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실태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 1-1.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실태는 어떠한가?
 - 1-2. 결혼이민여성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무엇인가?
2. 방문교사의 관점에서 본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는 어떠한가?

2. 연구 참여자의 선정

연구 참여자로는 결혼이민여성과 방문교육 교사의 두 집단을 선정하였다. 결혼이민여성 이외에 방문교사를 참여시킨 이유는 결혼이민 여성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사회와 문화에 대한 경험에 한계가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희망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제공자와 생활실태 관찰자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결혼이민여성 참여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교육 수강생으로 결혼한 지 1년 이상 되었고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심층면접을 위해 개인과 가족의 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여성들을 선정하였다. 또 대구광역시 거주자로서 다양한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출신국가, 자녀유무, 프

로그래에 대한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방문교사 참여자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한글교육 지도사와 아동양육 지도사 중 집단면접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집단면접은 두 가

지 목적에서 실시하였는데, 면접용 질문목록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과 심층면접을 보다 친숙한 분위기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1차 집단면접은 2008년 7월 13일에 2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일반적인 적응상황과 참여했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결혼 초기 적응에 어려웠던 점과 현재 적응상태, 도움이 되었던

〈표 3〉 결혼이민여성 집단면접용 질문목록

연구문제	주요 영역	하위 질문
갈등과 적응과정	기본사항	1. 개인과 가족의 특성: 결혼연도, 본인과 남편의 연령, 학력, 본인의 결혼 전 및 현재 직업, 배우자 직업, 현재 동거가족, 주거상황 2. 국제결혼의 동기와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는?
	의식주	1. 현재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나? 2. 현재 의식주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는?
	언어	1. 현재 한국어 능숙도는?
	생활방식과 문화	1. 생활방식에서 본국과의 큰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2. 본국에서의 생활방식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 3.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 상태	1. 현재 경제적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2. 돈을 벌 의사가 있는지? 그 이유는? 3. 취업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부관계	1. 배우자와의 초기적응에서 어려웠던 점과 현재 어려운 점은? 2. 현재 배우자에 대해 불만인 점과 만족하는 점은?
	시부모 및 가족관계	1. 시부모와 얼마나 자주 왕래하는가? 그들로부터 받는 도움은? 2. 남편의 형제자매나 동서 등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녀양육	1. (자녀가 있는 경우)현재 자녀양육에서 어려운 점은? 2. 배우자가 자녀양육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사회적 관계	1. 주변에 만나는 모국인 친구가 있으며,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가? 2. 주변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이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교류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받는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현재 참여프로그램 및 희망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프로그램만족도, 앞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경험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동조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사례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을 일관성 있게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 면접용 질문을 사전에 작성하여 활용하였고(표 3 참고), 1차 면접의 내용을 기록, 확인한 후 미비한 내용과 더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한 다음 면접에 대비하였다.

본조사를 위한 집단면접은 2008년 7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21명의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세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방문교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은 사전 공지를 통해 동의를 얻은 후 예비조사 없이 같은 기간

동안 33명을 세 번에 나누어 진행하였다. 집단 면접 대상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을 보면(표 4 참고), 출신국이 중국 11명, 우즈베키스탄 3명, 캄보디아 4명, 베트남 3명이었다. 연령대는 비중국인들은 모두 20대인 반면 중국인의 경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30-40대였으며, 이들의 남편 연령은 20대 1명, 30대 9명, 40대 9명, 50대 2명으로 아내에 비해 매우 높았다. 남편과 아내의 연령차를 보면, 연하와 2살 차이인 두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 10세에서 25세까지의 차이를 나타냈다. 남편의 직업으로는 회사원이 전체 21명 중 11명으로 과반수이며, 대부분 생산직에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의 입국년도는 캄보디아 출신 1인을 제

〈표 4〉 결혼이민여성 집단면접 대상자 인적사항

연번	출신국	본인 연령	남편 연령	남편직업	입국년도	결혼년도	시부모동거	자녀수
1	우즈베키스탄	25	37	회사원	2008	2008	×	0
2	우즈베키스탄	25	46	회사원	2008	2008	×	0
3	우즈베키스탄	25	35	회사원	2008	2008	○	0
4	캄보디아	24	46	운전업	2007	2007	×	2
5	캄보디아	25	35	회사원	2008	2007	×	0
6	캄보디아	23	42	엔지니어	2004	2005	×	1
7	캄보디아	25	50	자영업	2007	2007	×	0
8	베트남	24	34	무직	2007	2007	×	0
9	베트남	21	36	회사원	2007	2006	×	0
10	베트남	28	36	무직	2007	2006	×	0
11	중국	33	40	회사원	2004	2004	×	2
12	중국	31	42	건축업	2005	2005	×	1
13	중국	37	39	도배업	1997	1998	×	2
14	중국	34	29	무직	2007	2006	×	1
15	중국	47	49	회사원	2007	2006	×	0
16	중국	32	42	회사원	2006	2006	○	0
17	중국	37	41	무직	2005	2005	×	1
18	중국	29	39	회사원	2006	2006	×	1
19	중국	26	39	회사원	2007	2007	×	0
20	중국	31	44	회사원	2001	2001	×	1
21	중국	42	54	개인택시	2005	2004	○	0

외한 비중국인들의 경우 2007년이나 2008년으로 비교적 한국문화에 대한 경험이 적었다. 반면 중국인들의 입국년도는 1997년에서 2007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고 조선족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비교적 한국생활에 익숙하였다. 결혼년도도 2006년 이전인 경우는 21명 중 11명이며,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도 50%이상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가 9명인 반면 없는 경우는 12명이었는데, 비중국인 대상자 10명중 8명이 자녀가 없는 반면 중국인의 경우 11명중 4명이 자녀가 없었다. 시부모와 동거하는 가정은 3 가정에 불과하였다.

4. 자료의 분석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사례별로 내용을 정리, 기록한 후 연구문제에 맞게 중요 주제들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현행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틀을 차용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이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으므로 현행 지원프로그램의 운용에 기초한 평가 및 요구도의 분석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을 표로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분석의 틀은 결혼이민

자가족지원사업의 대범주로서 공통교육과 특화교육을 기초교육분야와 특별교육분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공통교육과 특화교육은 사업 집행상 분류로서 교육프로그램의 범주구분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초교육분야에서 한국어교육과 가족통합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한국생활의 정착을 위한 기본 소양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상담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후 관리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상담프로그램이 교육적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현행 프로그램 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포함시켰다. 특별교육분야의 소범주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포함되었는데 문화정서지원이나 역량강화지원, 다문화인식개선, 자녀지원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틀은 각 교육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지, 실행되었다면 장점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각 소범주별로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결혼이민여성, 방문교사의 간략한 평가를 제시한 후 교육적 요구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범주에서 더 많은 요구도가 나타났는지를 숫자로 제시할 수 없으나 그 교육적 내용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

<표 5> 분석의 틀

대범주	소범주	결혼이민여성		방문교사	
		현행 평가	요구 내용	현행 평가	요구 내용
기초 교육 분야	한국어교육	- 필요성	- 요구정도 - 개선 사항	- 진행의 문제점	- 학생들의 요구정도 - 개선사항 - 교수방법
	상담	- 학습효과		- 학생들의 평가	
	가족통합	- 문제점		- 상담 활용사례	
특별 교육 분야	문화정서지원	- 시행 여부 - 문제점	- 필요성 - 희망사항	- 필요성 - 시행경험	-교육대상/방법 -교육방향
	역량강화지원				
	다문화인식개선				
	자녀지원				

해 분석틀의 각 범주마다 연구 참여자들이 강조한 내용을 제시하고, 주요어를 추출하였다. 또 각 참여자 집단 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 간의 관점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IV. 결과 분석

1.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실태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1) 결혼이민여성의 생활실태

생활실태는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생활문제의 유형과 본 연구의 참여자들로부터 추출된 생활실태의 유형을 토대로 언어, 일상생활과 문화 적응, 부부관계, 시부모 및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적 상태, 자녀양육의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① 언어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한글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며, 우리나라 사람과 외모에 차이가 없는 중국 출신 참여자들의 경우도 언어 때문에 외국인으로 인식되는 점을 힘들어하였다.

‘말해보고 나면, 어?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이렇게 말하는 거 좀 그래요. 억양 차이 때문에 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② 일상생활과 문화 적응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화제는 음식이었다. 출신국과 현저히 다른 식생활과 식습관을 지적하였으나, 적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 문화적 배경으로서 남편

의 성역할에 대한 차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생선 먹기 힘들어요. 생선 비린내 때문에 싫어요.’
 ‘(중국)청도 지역에서는 회를 많이 먹어서 여기서 생선 먹는 것 괜찮아요.’

‘반찬 가짓수가 많아서 설거지가 많아요.’

‘한국 요리 만들기 어려워요. 김치볶음, 삼겹살 먹고 한국 음식 잘 먹고 괜찮아요.’

‘우즈베키스탄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혼자서는 한국 요리 잘 안 먹고 요리해서 가족이랑 같이 먹어요.’

‘한국 남자는 집안일 안 해요.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밖에 몰라요. 남편한테 바라기만 해요. 중국 남자는 다 해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한다고 생각해요.’

③ 사회적 관계

참여자들은 처음 입국 후 친구나 지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고립감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출신국 친구를 만나게 된 경우 그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인을 친구로 만나는 경우나 한국인 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없었다.

‘다른 사람의 시선도 힘들었어요.’

‘친구도 없어요.’

‘열심히 해도 알아주질 않아요.’

‘조금. 좋아요. 센터 와서 만났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 집에 가서 놀아요. 영화 보고, 우즈베키스탄 식당 가고, 시장 보고.. 같이 가요.’

‘처음에 친구가 없었을 때는 집에서 TV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 많이 해서 전화 비 많이 나와요.’

④ 부부관계

남편과의 관계는 참여자에 따라 다른 생활 측면과 연관되면서 큰 편차를 보였다. 즉, 남편의 소득이나 경제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모르는 사례나 자녀계획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를 볼 때 남편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나 부인으로서의 역

할 기대감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경우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내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는 사례도 있어, 결국 남편의 결혼에 대한 인식에 따라 부부관계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남편이 얼마 버는지 몰라요.’

‘아기 가지고 싶은데 남편이 원하지 않아요. 아기가 없어 심심해요.’

‘남편이랑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외국 사람인거 아니까 뭐든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요. 시어머니 있을 때는 남편이 안 해줘요. 그래야 시어머니가 좋아하거든요.’

‘처음엔 싸워서 우리나라 갈거야 하며 울면 남편이 달래줬어요. 지금은 안 달래줘요.’

⑤ 시부모 및 가족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역시 시부모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외국인 며느리에 대한 수용 정도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그 자체가 갈등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어머니 싫어요. 같이 살면 더 싫어요.’

‘같이 살면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잘 몰라해요.’

‘같이 살면 갈등도 심해지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시어머니가 한국 왔으니까 한국 사람처럼 하라고 하는데, 문화가 다른데도 강요하고 이해를 안 해 줘요.’

‘시어머니가 캄보디아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시어머니 싫어요.’

‘남편이랑 둘이 살아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우리 서로 좋아해요. 전화도 많이 해요. 시택에 왔다 갔다 해요. 시어머니랑 뽀뽀도 하고 껴안아요. 원래 우즈베키스탄 시어머니 좋아요. 선물 많이 줘요. 한국 시어머니, 우즈베키스탄 시어머니와 달라서 선물 안줘도 괜찮아요. 한국 시어머니는 반찬 줘요. 한국 시어머니 안 좋은 점 없어요.’

⑥ 경제적 상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가계의 경제적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며 한국인 여성처럼 가계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해 생활비나 용돈을 남편으로부터 타서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활비나 남편의 소득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한다.

‘잘 살고 싶어요. 남편이 벌어들인 돈이 적어서 남편 혼자 벌면 힘들니까 둘이 돈 벌면 싸우지 않고 좋아요. 남편한테 돈 받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벌어서 쓰고 싶어요.’

‘돈 벌고 싶은데 남편이 못하게 해서 불만이에요.’

‘남편이 돈 적게 주는 것 싫어요. 생활비 한 달에 15만원 받아요.’

‘일주일에 10만원 받아요. 그걸로 반찬, 음식, 과일 사요.’

‘용돈 일주일에 5만원 받아요.’

‘시어머니가 다 사줘요.’

‘웃은 남편이 사줘요.’

⑦ 자녀양육

참여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한정되어 있는 현실은 자녀양육에서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즉, 자녀를 돌봐주거나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가족이 시부모나 직계가족에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 가족원조차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 육아나 교육에 대한 정보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프셔서 아기 못 봐줘요.’

‘육아 정보, 교육에 대해서 얘기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워요.’

‘자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정보를 얻어요.’

‘아기가 많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힘들었어요.’

이상과 같이 결혼이민여성들의 생활실태에서 나타난 갈등과 적응 양상을 통해 갈등을 감소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

로그램에 대한 요구나 선호를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나 대등한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대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외국인여성과의 결혼생활과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결혼이민여성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참여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틀에서 제시한 범주별로 볼 때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 역량강화, 문화정서지원, 자녀지원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으며 상담이나 다문화인식개선 등에 속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

① 한국어교육

한국어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서 무료로 제공되는 교육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외국어 습득이 쉽지 않은 만큼 자국어와 연계된 서비스를 원하는 참여자도 있으며, 언어 습득을 발판으로 하여 취업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한국어교육 무료로 해주니까 너무 좋고, 제일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처음 한국 왔을 때 한글 교육 해주는 곳도 없었는데, 지금은 무료로 해주고 너무 좋아요.’

‘한국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중국어할 수 있는 선생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면 더 좋겠어요.’

‘한국 말 배우는 게 좋아요. 기술이 없으니까 한국 말 배워서 일하고 싶어요.’

② 가족통합

이민자가족 내의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적응을 위해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나 참여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우보다 남편의 시간부족을 이유로 참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경우가 더 많았다.

‘아빠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편들과 여행을 가면 좋겠어요. 캠프 같은 거 좋아요.’

‘남편들 모임은 한 두 번은 괜찮은데 지속적인 모임은 힘들 거 같아요.’

‘남편 회사 바빠요. 토요일에도 회사 가요. 남편 시간 없어요.’

‘일요일 하루 쉬면 마트가고, 시댁가요. 남편 쉬어요. 남편 피곤해요.’

③ 역량강화

역량 강화는 참여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분야였다. 즉,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이나 부업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외국인으로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자리를 알선해주거나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교육을 희망하였다. 특히 본국에서 교사로 일했던 참여자는 본인의 직업경험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교사라는 직업을 희망하기도 했다.

‘일자리를 알선해 주면 좋겠어요.’

‘직장 가지고 싶은데, 언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서 힘들어요.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단지 외국인이라서.. 너무 슬퍼요.’

‘중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고,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싶어요.’

‘일 할 수 있는 꽃이나 도자기 등을 가르쳐주었으면 좋겠어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성서 복지관에서 했어요. 너무 좋아요.’

‘기술 같은 것 익히고 싶어요.’

④ 문화정서지원

출신국과의 문화적인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지원 중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한국음식에 대한 필요성이었다. 그만큼 식생활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필수적인 생활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참

여자들이 한국요리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원했다.

또, 일부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선호와 취향에 따라 운동이나 노래 등의 여가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맛없다고 구박 하거든요.’

‘요리를 여기 센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배우고 싶어요.’

‘한국 요리 잘 못해요. 시어머니랑 따로 살고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시어머니가 요리 다 해줘요.’

‘운전 배우고 싶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저는 운전

했어요. 한국이랑 달라서 지금은 못해요.’

‘테니스나 탁구 배우고 싶어요. 운동 좋아해요.’

‘복지관에서 노래도 배우고 재미있었어요.’

⑤ 자녀지원

참여자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학령기에 있는 자녀의 학습 도우미 등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였다. 자녀교육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원했으며, 현재 자녀를 두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도 미래의 자녀양육을 위해 자녀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양육을 위

〈표 6〉 결혼이민여성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대범주	소범주	결혼이민여성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요구내용
기초 교육 분야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이고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매우 많아서 선택가능할 정도로 교육 제공의 양은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임 - 대부분 제일 필요한 교육내용이므로 지속되기를 희망 - 교사에 따라 학습의 질이 다른 것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활동과 연계된 한국어 교육 요구(예: 한국노래와 연계된 교육, 통역 활동 등) - 자녀의 언어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 필요
	상담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요구도는 낮았음	
특별 교육 분야	가족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가족통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예는 적었음 - 참여자들 대부분 시간부족으로 인해 남편의 지속적 참여에 회의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참여자 남편대상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을 제안. 특히 여성의 출신국별로 모임결성이 정교교류에 효과적 -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한 가족여행 프로그램 확대 희망
	문화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음식 프로그램 위주여서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평가 - 친구도 많지 않고 할 일도 없어 여가활동이 필요하므로 문화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 운전, 운동, 춤과 노래 등 보다 다양한 문화 교육의 확대를 희망 - 일부참여자 한국역사나 지역문화 등에 대한 요구 제안
	역량강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에 강한 애착과 희망을 적극적 표출 -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관심과 참여 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 이외의 기술, 컴퓨터 등을 선호 - 일자리 알선, 일과 연결되는 프로그램에는 경쟁적으로 참여 의사
	다문화인식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
	자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필요하며 자녀의 학습도우미를 강력하게 희망 - 본인이 자녀교육 방법을 배우거나 개발하기 보다는 외부인력에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교사의 학습도우미 - 공부 도우미, 대학생 자원봉사, 방문교육, 자녀교육프로그램을 희망

한 서비스의 수혜 뿐 아니라 자신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녀 교육이 제일 급한 문제예요. 방문교사들이 직접 자녀를 교육해주면 좋겠어요.’

‘공부 도우미가 왔으면 좋겠어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라도 꾸준히 자녀 교육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아기가 생기면 앞으로 방문교육 신청하고 싶어요.’

‘엄마 대상으로 하는 자녀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이상에서 참여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 역량강화, 문화정서지원 중 한국음식, 자녀지원 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의사소통과 식생활은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자녀를 둔 참여자에게 자녀양육은 가족과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기적인 과제이다. 또한 자신의 역량 강화를 통해 취업을 하고 경제력을 갖으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분석들에 의해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2. 방문교사의 관점에서 본 필요 프로그램

방문교사들을 통해 결혼이민여성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유형이었다. 결혼이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달리 방문교사대상 면접에서는 방문교사들이 이민여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므로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관계나 가정의 분위기 등을 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결혼이민여성들에게서 표출되지 않았던 남편이나 시부모와의 관계에 필요한 교육, 그리고 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① 한국어교육

한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초기 이민여성들에게는 모국어로 통역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을 통해 효과를 높이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대상자들에게는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이민여성의 정체성과 자녀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이중 언어교육 등을 제안하였다.

‘자국어를 하는 사람이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글이 안 되는 대상자는 남편과의 대화가 안 되니까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통역자를 데리고 가서 가족과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어요.’

‘복지관이나 교회 등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이민자들이 프로그램 쇼핑을 해요. 그래서 더 권위 있는 한국어 교육이 필요해요.’

‘학교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인식해요. 복지관보다 이미지가 더 좋아요.’

‘저는 중국인 대상자에게 아이에게 중국어를 사용하게 하고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어발달 장애가 생기지도 않고, 엄마는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어 엄마의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엄마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내 대상자의 자녀는 엄마의 모국어인 일본어는 능통하지만 한국어는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기더라구요.’

② 가족통합

원만한 부부관계와 결혼이민여성가족의 통합을 위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서부터 남편과 가족에게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역할을 인식시키고, 남편에게 아버지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견해를 표출하였다.

- 부부 대상 성교육

‘부부관계나 성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대상자가 자궁암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는데... 결혼의 순결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이 필요해요.’

‘남편은 성에 대한 욕구가 크고 아내가 힘들어 하는데도 남편의 강요에 거절을 못해요. 반대로 남편이 불구라서 가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피임약 먹으라는 소리만 해요. 피임에 대한 교육이 절실해요.’

-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교육

‘시어른한테 말대꾸를 해서 고부갈등이 발생해요. 고부갈등을 해결하는 책을 읽더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민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생기면 좋겠어요.’

- 남편 및 시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한국 남자들도 문제가 많아요. 남편이 150만원을 벌고 60만원은 저금하고, 60만원은 시어머니 준다고 그러고 나머지 30만원으로 생활비하고 용돈 쓰라고 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이 없음을 인식시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한국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듯해요.’

‘시부모가 외부와 차단을 많이 시킵니다. 나가면 바람이 들고, 전화요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말만 잘 듣기를 바라죠. 그러한 것은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지기반을 막기 때문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해줬으면 해요.’

‘제 대상자는 남편이 원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깥 외출을 못하게 해요. 그렇지만 남편이 아내 나라에 돈을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살림하고 야기 보고 돈 때문에 같이 살아요. 아동양육 선생님도 왔으면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지도사가 방문하는 시간이 자기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남편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가르쳐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시누이가 하나하나 간섭을 해요. 또 시동생이 형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오고 너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야기 보기를 못하고, 가부장적이에요. 나이가 많거든요.’

‘남편들 대부분이 단순노무직이다 보니까 근무시간이 길고, 쉬는 시간이 없어서 또는 학력이 낮아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들이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들으니까 남편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재혼 가정에 있는 한국 아이들이 방치된 채로 있어요. 세엄마와 의사소통도 안 되고, 유대관계도 없고,

그럼 결국 아내는 파출부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③ 역량강화

역량강화를 위한 현행 지원은 여성의 자국어 능력이나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방문교사들은 이들의 취업능력이나 기술교육에 앞서 기본적인 책임감과 자발적인 참여의지 등을 인식시키는 의식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결혼에 대한 책임감

결혼이민여성들의 평균 연령이 낮거나 결혼에 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혼동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구들이 보내서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나 적응하려는 의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 자발적인 참여와 교육

현재 제공되고 있는 방문교육 프로그램이 강제성 없이 무료로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이는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자극하지 못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본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가능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해 혜택을 누리하고자 하는 태도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들이 배우려는 의지보다는 밖으로 놀러나가기 원해요.’

‘스스로 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지도사 선생님에게 어디 태워다 달라고 말해요.’

‘공짜,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교육은 이민자들을 얼마 역할을 하지 않게 만들고, 다른 기관에 맡기게 만 들어요.’

‘복지관이나 다른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지도사를 귀찮아해요.’

- 경제적 능력

남편의 저소득이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취업과 돈벌이에 대한 욕구가 크므로 이에 대한 불안감과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돈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커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커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구요.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요.’

‘선생님 돈이 너무 없어요.. 라는 소리를 많이 해요.’

‘남편이 손을 잘려 실직상태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한대요. 그러나 돈을 벌고 싶어도 말이 통하지 않으니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직장을 구해 달라, 부업을 구해달라고 해요.’

④ 문화정서지원

- 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

양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이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한국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현상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이는 남편과의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 뿐 아니라 문화, 사회현상 등에 대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대상자들을 지도사 집으로 모아 한국어로 얘기하고,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했더니 한국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거 같아요.’

‘중국의 경제구조를 토대로 한국을 평가하고 이해하지 못해 외국인으로서 내국인에 비해 임금이 더 적은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남편의 실직이나 휴직 문제를 이해 못해서 갈등,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 한국사회에 대한 통합 의지 및 노력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단기적 프로그램의 수혜자에 머물

경우 시간이 지나도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인으로 살아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한국사회에 부딪히고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되었다.

‘대상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얻는 것을 알아야 해요. 가만히 앉아서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인터넷 등으로 자기가 직접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요. 행동반경을 넓히는 것도 중요해요.’

⑤ 자녀지원

자녀지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여성 당사자 뿐 아니라 방문교사의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지적되었으며, 자녀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이민여성의 정착기간이나 자녀의 연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지원프로그램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자녀교육

‘일본이민자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자녀 교육이에요. 일본에서는 자녀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데, 한국은 조금 심하다고... 그래서 한국 엄마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 많이 물어봐요.’

‘제 대상자는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이 전문한 것 같아요.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 자녀 학습 지원

‘이민자들은 아동양육지도사가 아니라 학습도우미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오래 정착하신 분들은 다른 걸 원해요. 학습지도 같은 것들..’

‘자녀들은 학습이 안 되어서 학교에서 말이 없어요. 학습이 아예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인정하기 싫어서 서비스를 중단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대상자 자녀는 초등학교 입학은 1년 유보하기로 했어요. 언어가 안 되면 학습 뿐 아니라 따돌림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있기 때문에 수와

(표 7) 방문교사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대범주	소범주	방문교사	
		현행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요구내용
기초 교육 분야	한국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관, 종교단체 등 프로그램의 중복 문제 - 결혼이민여성이 선택의 입장에 있어 전문적 제공주체로 인식된 대학교나 잘 가르치는 선생님께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남 - 수준별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준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한국어선생님을 생활도우미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위있는 기관에서 검증받은 한국어 교사의 교육 시행 - 통역프로그램과 연계 필요 - 의존적인 교육프로그램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 - 한국인에게 국어를 가르치듯이 하는 것보다는 생활과 결부된 한국어 교육방법이 더욱 바람직함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심각한 남편의 폭력과 학대 사례를 상담프로그램과 연결하기 어려운 문제점 내재 - 교육대상자들의 자녀양육문제에 대한 상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이 요구되는 사례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 확립 - 결혼이민여성이 무기력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상담프로그램의 홍보와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 필요
	가족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통합문제 사례 보고됨(예 :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와 아내에 대한 불신, 시가족원의 사생활 침해, 아내의 비순종에 대한 남편 부적응, 재혼가정의 자녀의 방치 등) - 가족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편대상 부부관계 및 성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고부갈등관련 교육 필요 - 남편 및 시부모 인식개선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함
특별 교육 분야	문화정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부모와 남편이 외부접촉 차단하므로 문화를 접촉할 기회 적음 - 남편이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제공 노력 없음 - 본인의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 부족하며 근본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하여 알고자하는 관심이 없다고 판단됨 - 현행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상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나 당사자들은 이에 대한 관심이 없으므로 관심을 높이는 교육 필요 - 한국인 가정과 접촉을 위한 한국인 가정 체험학습 프로그램 필요 - 한국의 사회와 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한국 사회문화교육 필요
	역량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적 결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적 동기 부족한 경우가 많음 - 교육프로그램이나 방문교사를 이용하려는 의존적 성향 - 경제적인 문제해결에의 강한 동기를 가지므로 취업역량에 지나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인 참여 동기 자극을 위해서는 역량강화 교육이 효과적 -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무조건적인 무료 지원을 지양할 필요 -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교육대상자들이 강하게 희망하나 이는 오히려 기존가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향후 결혼이민여성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준비와 대책 필요
	다문화 인식개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자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기간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의 가장 고민되는 문제이나 방문교사서비스로 대처하고 있음 - 교육대상자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 전무한데 비해 이를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사적 네트워크가 매우 제한적 - 많은 가정에서 자녀언어발달장애로 학습부진 등의 문제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연령별 프로그램 개발 필요. 자녀출산 및 육아, 취학전 아동 발달, 학령기 자녀 학습발달 등 전문적인 자녀교육방법을 교육해야 함 - 엄마 모국어와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 - 학습 도우미와 출산도우미를 강력하게 희망

한글을 더 배우고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동화 구연

‘엄마들에게 동화구연을 해주면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⑥ 상담

상담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었다. 이는 면접 대상 이민여성들이 상담을 원할 만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거나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방문교사가 경험한 사례들은 심각한 남편의 폭력과 학대, 또는 자녀양육의 문제점을 겪고 있어 상담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계속 남편에게 구타를 당했대요. 아기가 생겨도 계속 구타를 당하는데, 이혼은 절대 생각하지 않고 있구요. 그런 대상자들의 문제를 들어주는 하지만, 지도자인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대상자의 친구인데 남편이 폭행하고 감금해서 도망간 사례가 있어요. 이들은 결혼이민자로서 받을 수 있는 법률적 보호 등을 모르고, 국내 베트남 남자들도 결혼 이민 베트남 여성을 멸시하므로 도움도 못 받는다고 해요. 이들을 위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해요.’

‘24개월 된 아이가 자기 머리를 쥐어뜯어요.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울거나 쥐어뜯는 등 자학을 해요.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무료상담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방문교사의 관점에서 본 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결혼이민여성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남편이나 시부모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점이나 결혼이민여성들에게는 취업을 위한 능력과 역량 강화 이전에 성인으로서 결혼생활에 대한 책임의식과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 동기가 요구되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 결혼이민

여성들은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서, 심각한 부부문제나 자녀문제를 갖고 있는 여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주요결과를 분석들에 의해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V.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최근 우리나라에 결혼을 통해 정착하는 외국인여성의 수가 급증하면서 결혼이민성과 가족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한국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는 문제 뿐 아니라 이들 가족이 대등한 부부관계의 정립과 자녀양육 및 교육, 자녀의 사회 적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민 여성이 성공적인 사회 적응과 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개인, 가족, 사회가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재 결혼이민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고, 둘째,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통해 앞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셋째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출하기 위해 방문교육교사를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여 교사의 관점에서 본 필요 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영역별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교육의 경우 이민여성과 방문교사 모두 자국어와 연계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 특히 적응 초기에 있는 여성들은 남편과

의 기초적인 대화조차도 하지 못하는 실정므로 통역을 할 수 있는 한글교육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역과 한글교육을 모두 할 수 있는 인력 확보와 인건비의 문제로 인해 보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글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방문교사들은 한글교육 프로그램의 난립으로 인해 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의 내용측면에서 수준을 다원화시켜 기초교육은 여러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방문교육의 형태로 실시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읽기나 쓰기, 문법 등으로 수준을 높인 고급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선별하여 통합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기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민여성이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소통해야 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에서 불리한 점을 감안할 때 자녀어를 자녀에게 가르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자녀의 이중 언어 습득능력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한글교육은 결혼이민여성의 체류기간과 입국 전 본국에서의 언어습득정도, 개인적인 언어습득능력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녀의 능력이나 남편의 지원에 따라 이중 언어 사용도 권장할 수 있다.

둘째, 가족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한 것으로는 남편과 함께 하는 일회성 행사 참여나 아버지 교육뿐이었고 남편이 직장일로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교육이나 모임에 대한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당사자인 남편들의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의식 또한 매우 낮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반면 방문교사들은 원만한 가족관계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는 이민여성들의 적응 뿐 아니라 가족의 편견이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대상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또 필요하다고 보는 교육 및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해서 부부의 성교육, 아내의 역할에 대한 기대, 아내의 사회적 적응과 통합을 돕는 지원자로서의 역할, 아버지 역할 등에 대해 남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며, 아내를 대상으로는 남편 및 시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 여성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사생활을 간섭하는 시부모와 시형제 등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가족통합을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과 남편을 비롯한 가족 모두가 교육의 대상자가 되어야 하며, 결혼이민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다양한 교육들이 남편과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당사자들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부부관계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아버지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정부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도화하거나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도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여성이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두는 방법을 병행하는 운영상의 통합방안을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여성들과 방문교사의 입장에 큰 차이를 보인 영역이다. 즉, 결혼이민여성들은 주로 일자리와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하였으나 방문교사들은 취업에 앞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활과 교육 참여에 대한 책임감과 자발적인 의지, 성숙한 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였

다. 이들의 경제적인 상태나 취업 알선 요구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현재 프로그램에 성실한 참여의식을 보이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취업기술보다는 취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성실한 태도를 먼저 강화시켜야 함을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현재 역량의 수준과 요구수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개별적인 직업적성검사, 취업 및 직종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기초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신의 취업능력 및 우리나라 경제시스템 하에서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준비의식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문화정서지원 프로그램에서도 결혼이민여성과 방문교사의 의견에 큰 차이를 보였다.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한국의 음식과 식생활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나, 방문교사의 경우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와 사회에 통합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언급이 주를 이루었다. 즉, 결혼이민여성들은 당면한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한 반면 방문교사들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문화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자녀지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여성과 방문교사 모두 그 중요성과 시급함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의 관심은 자녀의 학습도움에 집중된 반면 방문교사들은 자녀의 언어장애나 취학 후 학습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과 장기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이 특별히 더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여섯째, 상담프로그램은 결혼이민여성들의 경우 그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나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거나 자녀의 부적응 현상을 목격한 방문교사의 경우 이들의 문제를 도와주

기 위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따라 생활상담의 경우 현재의 교육기관이나 방문교사가 상담제공자가 될 수 있으나, 가정폭력이나 자녀부적응 등 심각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기관에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통합적 운영시스템을 지역별로 추진하여 상담의 실효성과 운영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

이상의 결론을 통해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교육인 한국어교육은 수준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시켜 나가야한다. 즉, 현재와 같이 적응 초기의 여성에게 집중된 기초교육 뿐 아니라 거주기간이 오래되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여성들의 경우에도 한국사회에 동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한국어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면 교육형식과 내용이 다양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문화정서지원과 연계하여 한국노래나 독서를 통한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을 도입할 수 있다. 또 이들은 자녀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교육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엄마와 자녀가 동시에 참여하는 동화구연이나 동화책 읽기, 동요 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과 자녀지원을 연계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둘째, 결혼이민여성들의 모국어능력은 자녀에게는 이중 언어를, 한국인에게에는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자녀가 이중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엄마와 자녀에게 동시에 이중 언어를 가르쳐야 하므로 인력과 비용이 문제되나, 자녀의 성공적인 이중 언어 습득은 언어능력 뿐 아니라 원

만한 자녀관계를 유지하고 엄마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민여성의 자국어 유용성과 교육수준에 따라 자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중언어교육은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어교육 및 자녀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통합적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여성의 역량 강화와 다문화인식 개선의 통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상담, 가족통합, 자녀지원, 찾아가는 서비스는 상호 관련되므로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다. 방문교사들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가족문제나 자녀교육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가족들은 이러한 문제를 비로소 객관적으로 직시할 수 있게 되어 각종 상담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서 가족통합, 자녀지원, 상담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제공하거나 중복적으로 제공하여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듯 각종 프로그램이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될 경우 결혼이민여성의 생활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결혼이민여성들이 기대하는 취업은 이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향후 중요한 지원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이 한국어능력으로 인해 현재는 노동시장에서 약자이나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공급자로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인식하고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취업을 위한 역량지원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직업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기에 앞서 이들의 직업의식과 자발성에 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대상인 결혼이민여성은 경제적 동기에서 강력하게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에 필요한 역량강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료를 희망하는 등 무조건적인 혜택을만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책임

의식은 상대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수준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이들이 갖추고 있는 직업능력에 개인차가 있으므로 본국에서의 교육수준과 취업 경험에 따라 수준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준별 직업교육은 각 기관별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광역단위별로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장기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보다 적합한 직업군을 탐색하고 개발시켜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중언어를 필요로 하고 양국에서의 생활경험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업무, 여행서비스 및 통역, 무역업무나 자신들의 국제결혼 경험을 살린 국제결혼상담과 관련된 직업 등이다. 이러한 직업교육이 개발되어 실시된다면 한국어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연계하는 통합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다섯째, 현재 다문화인식개선프로그램은 상당히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가족통합프로그램의 경우도 남편 참여의 저조 등으로 운용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두 지원프로그램은 상호관련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두 프로그램의 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가족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통합프로그램에서는 가족들의 공동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후 중장기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도록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결론을 표로 제시하면 <표 8>과 같다.

이상에서 제시된 통합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면 운영주체별 통합이나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여성과 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각 기관은 프로그램의 중복성과 단기적 성과를 지양하고 기관의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관별 프로그램의 차별화, 수준별 차별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에 따라 각 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시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결과 방문교사들은 남편과 가족의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면접대상을 결혼이민여성 뿐 아니라 남편이나 시부모 등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들의 입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적응이나 갈등, 그리고 이를

〈표 8〉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통합적 교육프로그램 방안

기간		초기*	중장기
기초 교육 분야	한국어교육	- 한국어 집중교육 : 초급 및 중급 - 집합교육 참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방문서비스 제공	- 문화정서지원과 연계 프로그램 - 자녀지원과 연계 프로그램 (동요, 동화구연, 독서지도 등)
	상담	- 생활적응상담과 문화정서교육의 연계 집중 - 성교육 및 가족폭력상담과 가족통합교육의 연계 - 상담지원의 활용에 관한 교육	- 자녀학습관련 상담 - 발달지체 및 언어장애아동 지원 연계프로그램 - 방문교사의 상담프로그램 관련교육
	가족통합	- 가족관계 및 가족생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의 연계 - 남편 및 가족 대상 인식개선교육 병행	- 자녀문제 상담과 연계프로그램 - 중장기 거주자에게 요구되는 개별적 심화 가족통합교육과 방문서비스 연계
특별 교육 분야	문화정서지원	-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예: 한국 사회경제시스템, 대인관계, 예절 등)	- 한국가정과의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가정체험학습 기회 제공 - 한국의 역사 및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역량강화지원	- 자발성, 책임감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 - 교육대상자의 개별 역량 조사에 기초한 직업교육 수요 조사 필요	- 생활 자립을 위한 수준별 취업교육프로그램 - 조건부 무료교육 제공 - 정부의 노동정책과 연계하여 취업알선 기회 제공하는 취업교육프로그램
	다문화인식개선	-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과 가족통합 프로그램의 연계 - 다문화가족원 대상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 확대	- 일반시민 대상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 - 다문화축제 등 가족원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정서지원프로그램과 연계
	자녀지원	- 자녀가 없는 가정은 임신, 부모준비교육 제공 및 가족통합교육과 연계 - 임신 및 출산 가정의 경우 출산 및 육아 관련 교육 및 방문서비스와 연계	- 자녀 연령별 지원프로그램 (학습도우미, 동화구 연 등) 제공 및 한국어교육과 연계 - 자녀 학습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엄마 역량강화프로그램과 연계 - 엄마의 모국어 이중 언어 교육 활용, 언어지체아동을 위한 특별교육

*) 결혼이민여성 및 방문교사들의 인터뷰 과정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이 입국한지 3년 이상 되면 생활언어 및 기초적인 한국어 구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초기와 중장기의 구분을 3년으로 하였음.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결혼이민여성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비현실적이거나 특수한 요구사항에 그쳐 현실적으로 개설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한 각 제공주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된 프로그램을 추출해 담당자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유형과 성공요인에 대해 심층면접을 진행한다면 지역이나 결혼이민여성의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 개인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가족 및 가정의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대상자를 대구지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수강생과 방문교사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지역차나 특히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제한된 지역의 특성과 정서에 국한된 한계가 있으며, 모든 여성결혼이민자가족으로 일반화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참 고 문 헌】

- 1) 김영화(2008). 컬러풀 대구의 다문화 지역 사회정책. 대구광역시 2008 여성정책토론회 자료집, 61-93.
- 2) 김오남(2006a).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3) 김오남(2006b).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4)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5) 김이선(2007). 제자리를 찾아야 할 여성결혼이민자 정책. 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4, 22-31.
- 6)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 한국사회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7)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기념 심포지엄 학술대회 자료집, 17-48.
- 8) 김현희(2007). 한국의 결혼이민 배경과 현황, 현대의 다문화가족. 민족연구 31, 6-49.
- 9)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 10) 양선화(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자료집. (사)광주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11) 양철호, 김영자, 손순용, 양선화, 신봉관, 조지현(2003).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27-149.
- 12)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결과보고서.
- 13) 여성가족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운영결과보고서.
- 14) 오윤자(2008). 여성 결혼이민자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4), 63-77.
- 15) 유가효, 홍성희, 김성숙(2008). 결혼이민여성의 초기 적응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95-120.
- 16) 윤형숙(2004).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패와 전망 : 한울, 321-349.
- 17) 장진경, 전종미, 신유경(2008). 심층면접을

- 통한 다문화가족의 적응성 저해요인 분석. 2008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47-65.
- 18) 정일선(2007). “길찾기 -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6 국제여성정책 심포지엄 발표집, 127-144.
- 19) 최금혜(2005).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 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5, 219-244.
- 20)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21) 한건수(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22) 홍기혜(2000).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언론의 보도형태 분석.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홍달아기, 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29-741.
- 24) Ataca, B. & Berry, W. J.(2002).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a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1), 13-26.
- 25) Cottrell, A. B.(1990). Cross-national marriages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Contemporary Family Studies 21, 151-169.
- 26) Goldman, M.(1999).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 Meeting its goals in protecting battered immigrant women.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7, 375-392.
- 27) Killian, K. D.(2001). Reconstituting racial histories and identities : The narratives of interracial coup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7, 27-42.
- 28) Nah, K. H.(1993). Perceived problems and service delivery for Korean immigrants. Social Work 38(3), 289-296.
- 29) Woelz-Stirling, N., Kelaher, M., & Manderson, L.(1998). Marital conflict and finances among in Filipinas in Australi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4, 791-805.
- 접수 일 : 2009년 1월 15일
 - 심사 일 : 2009년 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2월 20일